

서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카드 결제로 주민 만족도 '최고'

주민문화생활편익 증진 위한 결제방식 다양화 지난 2월부터 시행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지자체 중 최초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

이다. 카드사용이 일상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자치협의회 논의 거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수강료 수납방식을 현금과 더불어 계좌이체, 신용

카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단말기를 도입해 올해 2월 1일부터 주민들은 수강료를 좀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고 프로그램 수강료 정산·관리의 편의 또한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한 주민은 "그동안 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는데 직장인이라서 낮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면서 "이제는 카드결제를 통한 연달정산 등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계좌이체도 가능해 결제가 참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작은 불편이라도 해결하는 적극행정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 '공구 사랑방' 확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 공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공구 사랑방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남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사용 빈도는 낮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사랑방 4곳을 새롭게 오픈한다"며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를 통해 공구 구입비용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편의까지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4월 공구 사랑방 조성을 위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 공구 사랑방 조성에 필요한 공간 확충 및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구 사랑방 설치 대상지역으로 백운1동과 대촌동, 사직동,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4곳을 확정했다. 최근 문을 열고 무상 대여 서비스에 나선 공구 사랑방은 백운1동 공구 사랑방과 대촌동 공구 사랑방 2 곳이다.

현재 이곳 공구 사랑방에는 전동

드릴을 비롯해 플라이어, 예초기 등 각 지역 상황에 맞게 25~30가지 종류의 생활 공구가 비치된 상태이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구 사랑방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공구 사랑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월산4동 공구 사랑방 조성은 마무리되면 남구 관내 공구 사랑방의 수는 지난해 문을 연 월산동 달피 공구방과 양림동 공구 사랑방을 포함해 총 6곳이 된다. 관내 공구 사랑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공구 사랑방이 설치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는 4곳의 공구 사랑방 이용자 만족도 및 타 지역 수요 조사를 실시해 공구 사랑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구민감사관 모집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제4기 광산구 구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제4기 구민감사관은 총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돼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 중 법률 회계 세무 문화 환경 건설 건축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 행정·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시민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8월4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광산구 누리집 공고 참조) 광산구 감사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2층 감사관실), 전자메일(mcmc@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민감사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감사관(062-960-806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2016년부터 건설·건축, 환경·보건, 복지, 행정, 문화·공동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돼 왔다. 최근 종료된 '2022년 동(洞)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참여를 비롯해 자체 감사 참여,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백세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백세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친화 분야 전문가,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구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과 관련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고령친화도시 발전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각 기관 인사이드으로 인한 신규 위원 3명 위촉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고령친화도시로 재

인증을 받은 동구는 오는 2024년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외부 공간 및 건물 ▲교통 ▲주택 ▲의사소통과 정보 ▲시민참여와 고용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사회 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등 8대 분야 38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 공모

오는 9월 7일까지 아동복지과로 제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2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저출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저출생 대응 시책 ▲저출생 슬로건 ▲UCC 등 3개로 나뉜다.

저출생 인식 제고, 임신·출산·양육 관련 제도 개선, 돌봄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북구청 누리집을 참

고해 관련 서류를 아동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하고 구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각 30만 원, 장려상(2명) 각 2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된 아이디어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저출생 대응 홍보영상 제작', '저출생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등 저출생 관련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